

“교실 떠나 흑염소와 함께 고향서 새 출발”

강진 귀농 박영철씨

작년 광주 학원 정리 후 가족과 귀향 인생 2막 '농부'로... '희망'·'회복' 등 만족 '흑염소 온라인 전문몰' 운영 계획도



광주에서 학원을 운영하던 박영철씨는 지난해 가족과 함께 고향 강진으로 귀농, 흑염소 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박씨는 낯설 줄 알았던 시골이 오히려 '쉽'과 '회복'의 공간이 돼 흑염소 온라인 전문몰 운영 등을 계획하고 있다. <강진군 제공>

“고향에 뿌리내리니 새 삶이 시작된 듯 행복합니다.”

광주에서 학원을 운영하던 박영철(50)씨는 지난해 도시 생활을 정리하고 고향 강진으로 귀농했다.

박씨는 9월 “어느새 학원 문을 여는 대신 흑염소 울음소리로 하루를 시작하고 손에는 분필이 아닌 건초를 드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웃었다.

가족과 함께 강진에 터를 잡은 그는 “아내와 두 자녀 모두 만족하며 살고 있다. 가장 큰 위안은 가족의 행복”이라고 말했다.

낯설 줄 알았던 시골은 오히려 '쉽'과 '회복'의 공간이 됐다.

박씨와 흑염소의 인연은 초등학교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담임교사가 건강을 위해 기르던

흑염소 새끼를 맡기며 “네가 키워 보라”고 했던 경험이 귀농의 씨앗이 됐다. 수십년의 시간이 흘러 흑염소는 그의 인생 후반을 지탱하는 동반자가 됐다.

/강진=정영록기자



총장·대한MJF 등 5개 라이온스클럽 후원물품 전달

국제라이온스협회 355-B1지구 총장라이온스클럽은 9일 “추석을 맞아 지난 2일 형제클럽인 대한MJF·광주평화·광주청솔여성·광주VIP라이온스클럽 등 4개 클럽과 함께 광주 남구 방림동 소재 성요셉사랑의식당을 찾아 쌀 50포(10kg)와 라면 30상자 등 250여만원 상당의 후원물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5개 클럽 합동 봉사는 스포츠클럽과 형제클럽 간 우정을 다지고 봉사의 의미를 함께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안승철 총장·이경훈 대한MJF·김동희 평화·연모숙 청솔여성·정찬미 VIP라이온스클럽 회장을 비롯한 회원 등 25명이 참석했다. 한편, (재)천주교가리파사수녀회에서 운영하는 성요셉사랑의식당은 지방자치단체의 식비 지원을 받지 않고 후원과 자원봉사만으로 매일 저소득층에게 무료 급식을 제공하고 있다.

/박현진기자



바르게살기운동 광주북구협 '송편 꾸러미 나눔' 행사

바르게살기운동 광주시 북구협회는 9일 “추석을 맞아 지난 2일 일곡경로당 앞 일곡어린이공원에서 '사랑 빛은 송편 꾸러미 나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전진숙 국회의원과 조석호 광주시의원, 정달성·손혜진 북구의원, 바르게살기운동 북구협의회 김연수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각 동위원장 및 회원 등 5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다문화 가정 등 취약계층 가족들과 함께 송편 빚기 체험을 한 뒤 송편을 비롯해 당면, 설량, 울리고당, 튀김가루 등을 상자에 포장해 관내 홀로 사는 어르신 등 어려운 이웃 150대에 전달했다. 김연수 회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어려운 이웃을 배려하고 더불어 사는 북구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인재영기자

전남대-농업박물관 '농경문화 보존·전승' 협약

전남대학교는 “최근 대학 호남학연구원과 전남대 농업박물관이 지역학 연구와 농경문화 보존·전승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학술 네트워크 구축 ▲공동 프로젝트 추진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역학 발전을 위한 공동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연구해온 대학 연구소와 '농도(農道) 전남'의 정체성을 살려 농업문화유산을 조사·보존해온 박물관이 협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1963년 창설된 전남대 호남학연구원은 호남의 역사와 문화를 종합적으로 연구해온 국내 대표 지역학 연구기관으로, 2020년에는 국내 최초

/박현진기자

조선대·광주 주얼리 공동브랜드 '비체아띠' 홍콩 진출

조선대와 광주 동구 귀금속 상인들의 합작 브랜드 '비체아띠'가 세계 시장 공략에 나섰다.



9일 조선대학교에 따르면 최근 조선대 산학협력단이 운영하는 광주총장귀금속특화지원센터가 '2025 홍콩 국제 주얼리 전시회 (Jewellery & Gem World Hong Kong 2025)'에 참가했다. 올해 전시회에는 전 세계 42개국 3천223개 기업이 함께했으며, '비체아띠'의 참가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주관하는 2025년 지역소공인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비체아띠'는 광주의 '빛', 주얼리 공방의 '빛', 원석의 '빛'을 아우르는 아틀리에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광주 지역 10개 업체가 힘을 모아 만든 공동브랜드다.

참가 업체들은 한국 주얼리 통합홍보관에서 제품과 기술력을 선보이고 세계 각국 바이어들과 상담해 수출 가능성을 확인했다. 문병권 광주총장귀금속특화지원센터장은 “이번 전시회가 지역 소공인의 해외시장 진출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세계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현진기자

진도경찰, 초등학생 범죄 예방·교통안전교육

진도경찰서 군내파출소는 “최근 군내면과 고군면 소재 4개 초등학교를 찾아 초등학생 150여명을 대상으로 범죄 예방 및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인회 군내파출소장은 초등학생 유괴 미수 사건을 사례로 소개하며 청소년 대상 범죄 유형과 예방 방법을 눈높이에 맞춰 설명했다. 특히 '나의 안전은 내가 지킨다'라는 슬로건 아래 ▲낯선 사람 응대법 ▲위험 상황 대처 요령 ▲자기 보호 방법 등 단계별 대응 요령을 교육했다. 아울러 ▲횡단보도 건널 때 좌·우 살피기 ▲어두울 때 밝은 옷 입기 ▲자전거-킥보드 이용 시 안전도 착용하기 등 생활 속 교통안전 수칙도 문답식 퀴즈로 알기 쉽게 전달했다.

정답자에게는 사포펜슬 등 학용품을 선물해 호응을 얻었다. 임진영 진도경찰서장은 “앞으로도 학교와 협력해 등·하굣길 학생 보호와 청소년 범죄 예방에 힘써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습할 수 있는 진도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진도=박세권기자

이주희 동신대 총장 '남도국제미식박람회' 성공 응원

이주희 동신대 총장이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릴레이 응원 캠페인에 동참했다.



9일 동신대학교에 따르면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는 오는 28일까지 목포문화예술회관 일원에서 열리는 정부 인증 대규모 국제 미식 테마 박람회다. 전남 각 시·군의 대표 먹거리와 K-푸드 산업관, 주제관, 음식명인관 등이 운영되며 향토음식과 특산품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이주희 총장은 “맛의 본고장인 전남의 맛과 멋을 널리 알리고, 식품 산업을 세계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이번 박람회를 통해 전남이 세계적인 미식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K-

푸드 산업을 선도해 지역 발전에도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총장은 서유미 초당대 총장의 지목을 받아 릴레이에 참여했으며 다음 주자로 윤병태 나주시장을 지목했다.

/박현진기자

'5·18 고교 시민군' 김향득 사진작가 별세



5·18민주화운동 당시 고등학생 시민군으로 참여했던 김향득 사진작가가 지난 7일 별세했다. 향년 62세.

1980년 5월 광주 대동고 3학년이던 김 작가는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계엄군에게 붙잡혀 상무대에서 38일간 모진 고문을 겪었다.

이후 광주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한 그는 광주은행에서 청원경찰로 근무하다 2007년 직장을 그만뒀다.

이후 5·18 최후항전지였던 옛 전남도청 자리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들어서면서 청사 원형 훼손 논란이 일자 오월의 현장을 기록하기 위해 카메라를 들었다.

그는 광주·전남 일대의 5·18 사적지와 유적지를 꾸준히 사진으로 담으며 오월 정신을 알리는 데 앞장섰다.

2009년에는 5월 정신 계승 '금남로 촛불' 1주년 사진전 '초(草), 불을 들다', 2010년에는 5·18민주화운동 30주년 사진영상전 '상실의 기억'에도 참여한 등 오월 정신을 꾸준히 사진으로 담아왔다.

5·18민주화운동 33주년인 2013년에는 사진전 '임을 위한 행진곡'을 열어 5·18 사적지와 추모비, 항쟁추모탑 등 50여점의 작품을 선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고문 후유증으로 앓던 파킨슨병으로 인해 최근 건강이 급격히 악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으로 형제인 김상재·김용도·김미영씨가 있다. 고인의 빈소는 북구 성요한병원장례식장 2층 3분향소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10일 오전 9시다. 062-510-3006. /주성학기자

김성준 광주시 주무관 도시계획기술사 합격



광주시는 9일 “도시공간과 도시계획과 김성준 주무관(시설6급)이 최근 실시된 '제136회 도시계획기술사 시험'에 최종 합격했다”고 밝혔다.

2022년부터 광주시 지구단위계획 수립·변경 업무를 담당해 온 김 주무관은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도시계획 업무에 깊이 있는 전문성이 필수적이라 판단해 자격 취득에 노력해왔다.

김 주무관은 이번 합격으로 건축시공기술사(128회)와 건설안전기술사(128회)를 포함해 총 3개의 기술사 자격을 보유, 도시계획부터 시공, 안전까지 아우르는 융합적 전문성을 갖추게 됐다.

김성준 주무관은 “업무 전문성을 바탕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 광주의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변은진기자

김용기 글로벌세아그룹 회장 전남대 강연



연매출 5조원, 전 세계 20여개국에 거점을 둔 글로벌의류 1위 기업의 창업자 김용기 회장이 전남대를 찾았다.

9일 전남대학교에 따르면 오는 14일 오후 2시 국제회의동 2층 용봉홀에서 '2025 제3회 전남대학교 용봉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세상은 나의 보물섬이다-꿈이 없는 도전정신으로 희망의 꿈을 꾸자'를 주제로, 김용기 글로벌세아그룹 회장이 연사로 나서 자신의 성공 철학과 글로벌 경영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다.

김 회장은 1974년 전남대 섬유공학과(70학번)를 졸업하고 1986년 '세아상역'을 설립해 의류 제조·수출 기업을 세계 1위 규모로 성장시켰다. 김 회장은 아이티에 초·중등학교를 설립하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하는 등 글로벌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왔으며, 이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과 금탑산업훈장 등을 받았다.

올해 6월에는 전남대총동창회로부터 '용봉인영예대상'을 수상하며 모교의 자랑스러운 동문으로 주목받았다.

/박현진기자

결혼

▲김병인·이윤경씨 차남 성록군, 김양민·김용애씨 장녀 수아양=18일(토) 오후 2시30분 웨딩그림위더스 광주 3층 펠리체홀.